東大新聞

永祿 發行人
齊永 印刷人
黃寶 編輯人
曾又方
金光鎭 主幹
金容喆 編輯局長
金賢柱 編輯部長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學位授與式25日 擧行

새 學士 1천3백76名 배출

博士 6, 碩士 1백35名 학위 획득

81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25일 오전11시 본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이번 학위 수여자는 학사 1,376명 석사 135명 박사 6명으로 총 1,517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로써 졸업생들은 그동안 학문의연마는 물론, 대학의 이념과 실제를 체득했던 젊는 피정을 떠나게된다。한편 수석 졸업자는 全好運(승가·4) 쓰로 100점만점에 94·4를 얻어 전체 수석졸업의 영광을안게 되었다。

首席卒業 全好運양 차지

노주현君등 31名 功勞賞

이날의 行事에는 黃壽永 총장을 비롯하여 財團 宗團, 同窓會및 내외귀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에 이어 학위수여, 상장및 상품수여, 총장식사로 진행된것이며 이날 수상하게될 각 단대별 수석자및 수석 졸업자, 공로자 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체 수석자
▲全好運=94·4.1(佛敎大 승가)
◇각 단대별 수석자
▲徐榮植=90·4.9(佛敎大 미술)
▲金昌恩=89·9.7(文理大 史學)
▲閔庚宗=89·1.6(法政大 농학)
▲韓坡相=90·3.8(經商大 經濟)
▲趙炳允=89·2.6(農科大 農學)
▲全光德=92·8.7(工科大 建築)
▲禹都澤=89·6.7(師範大 社會敎育)
▲鄭奇春=87·3.0(二部大 會計)
◇공로 표창자
▲노주현(農科大 農生)
▲박희윤(經商大 會計)
▲유한홍(文理大 수학)
▲지영종(文理大 화학)
▲송석표(經商大 경영)
▲윤길중(農大 농학)
▲최동지(工大 토목)
▲홍성호(師大 수교)
▲김계숙(師大 국사교)
▲김윤호(法大 경영)
▲이계송(文理大 국문과)
▲민희원(經商大 무역)
▲이진호(師大 체교)
▲차수남(工大 전자공)
▲이홍권(師敎大 불교)
▲김윤평(文理大 영문)
▲서동환(二部大 물리)
▲김윤평(文理大 영문)
▲정기순(師大 체교)
▲이말섭(師大 체교)
▲최창우(師大 체교)
▲박진규(師大 체교)
▲최창희(文理大 국문)
▲이원배(佛敎大學長 李智冠교수, 法度學長 閔內天교수, 二部大學長 金鍾遠교수, 총무처장 趙鼎樂교수 등 4명은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새로 기용된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學校當局에서는 지난 2월 8일 學·處長級 인사개편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개편은 鄭在覺 총장에 이어 黃壽永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취해진 조처인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佛敎大學長 李智冠교수, 法政大學長 閔內天교수, 二部大學長 金鍾遠교수, 총무처장 趙鼎樂교수 등 4명은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새로 기용된 인사명단이다。새로 기용된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장 李東林(국문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鄭允武(행정학)교수, 경영대학원장 崔世和(교육과)교수, 文理科大學長 閔庚鎬(화학과)교수, 經商大學長 韓炫(경영)교수, 農科大學長 金興培(농학과)교수, 工科大學長 金直燮(화공과)교수, 師範大學長 金容喆(교육과)교수, 기초과학부장 金錫貞(물리)교수, 교무처장 金翔圭(토목)교수, 학생처장 曺永祿(자연)교수, 기획실장 金容喆(교육과)교수 등이 취임하게 되었다。

學事日程

◇개 학=2月 26日
◇신입생수강신청=2월 22日~27日
◇재학생등록=2月 26日~27日
◇복학및 재입학=3月 3日까지
◇개강및 입학식=3月 2日
◇신입환영회=3月 13日
◇재학생 수강신청확인=3月 12日~13日

電算院 卒業式

배성우君수석졸업

本校 부설 전산원 제6회 졸업식이 지난12일 오전 11시 黃壽永본교총장, 安恩明 전산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있었다。

삼귀의례로 시작된 이날 식전에는 응시코자하는 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는데 전체수석 배성우君外 10명이 성적우수자로 21명이 학업우수자로 뽑혔다。

한편 이번에는 총 6백 졸업생을 배출해냈는데 졸업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安恩明원장의 졸업송사 수여 願으로 진행되었으며 安 원장은 『배움터에서 추구하던 학문과 기술을 졸업후에도 계속 간직하길 바라며,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현시점에서 국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전산학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산업일선의 역군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式辭에서 밝혔다。

學·處長級 인사개편

黃壽永총장 취임에따라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 보직을 맡게된 분들은 다음과 같다。

▲교무처장 金翔圭(토목)
▲교무처장 金錫貞(물리)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학원 교무주임▲尹鏡大 ▲免 경영대 교무주임▲尹鏡大
▲교무처 교무주임 補 행정대학원 교무주임▲鄭在覺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 교무주임▲尹鏡大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 건설본부 건설과장 補 경영대 시설과장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 서무과장▲金容喆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 서무과장▲金容喆
▲교무처 교무주임 補 경영대 교무과장▲尹鏡大

格調높은 施惠者되기를

—學位 授與式에 부쳐

〈文理大교수·演劇演出〉

먼저 榮譽의 榮光을 얻은 卒業生여러분에게 衷心으로 祝賀의 뜻을표한다. 76個 星霜의 긴 歷史와 伝統에 빛나는 民族의私學 東國大學校는 우리民族 現代史와 그 明暗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國家社會에 많은 棟梁을 배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東國의 所重한 人材를 社會에 내보내게된 것은 東國人 모두의 기쁨이며 國家社會의 慶事가아닐수없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榮光과 기쁨이 있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眞理의 本質과 學問탐구의 방법을 익혀준 恩師님들의 勞苦, 그리고 아껴온국가사회의 많은 혜택이 있었음을 깊이 인식해야될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그 知識이나 人格으로 보아 분명 이 社會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더구나 그 選択된 사람들이다. 같은 年齡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作業場에서 生存競爭의 苦難을 겪으며 시달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진리탐구의 象牙塔 속에서 때로는 낭만과 젊음을 만끽하며, 때로는 時代의 아픔과 民族의 장래를 고뇌하면서도 그 노력의 결과로 영예의 學位를 營爲하고 그 知識과 人格으로 社會의 指導者로 서 있는 것은 東國人 모두의 榮光이며 國家社會의 慶事가아닐수없다.

이와같이 선택받은 知性人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角度에서보면, 16年以上 學窓生活을 하면서 남다른 特惠를 많이받은 受惠者의 立場에 있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知識과 敎養을 갖추었다고해서 그것이 자기자신만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식과 교양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이제 국가사회 혹은 자신의 가정에 되돌려 주어야할 재산이기도 한것이다.

愛家者로서 더 이상 만족하고 대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 卒業生여러분에게 부여된 責任과 義務를 다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더욱이 날을 위하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할 施惠者로서의生活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있으려면 여러분은 卒業을 어떤 과정의 修了와 終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것은 試圖요 出發이라고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학문과 기술을 實社會에 나아가 活用, 實踐해보기 시작하는 生活의 變化로 그러려니와 敎科書나 講義에만 의존하던 공부의 범주를 벗어나 보다 공부다운 공부를 着手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됨직하다는게 사소한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大學을 졸업하면 배운 것을 쌓고 就業에 급급하는 事例를 흔히 볼수있다. 취업이나 말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가는 그렇지만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學究的 態度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요즈음 社會的 風潮에 관한 연구·분석·비판·창조·응용·개발·보급·교육·봉사·지도·협동·조정·통제·관리·감독·평가·보상·처벌·포상·징계·진급·진퇴·이동·전직·전보·파견·파면·해임·해고·휴직·복직·출근·결근·조퇴·지각·결석·휴가·출장·근무·퇴근·야근·철야·당직·숙직·휴식·휴게·휴일·휴강·휴교·휴업·휴전·휴회·휴학·휴가·휴양·휴양지·휴양림·휴양소·휴양촌·휴양림·휴양소·휴양촌·휴양림·휴양소·휴양촌

詩歌와 歌辭의 종속관계및 그 성격 연구

——歌辭의 장르

鄭仁漢 <大學院 國文科>

I、歌辭의 장르

흔히 한국의 詩歌文學이라 말할 때 이속에는 ①사뇌가 ②景幾体歌 ③俗謠 ④時調 ⑤歌謠들을 포함해서 부르고있는것 같다。 즉 ①~⑤의 上位 장르로서 詩歌를 인정할때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고전소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작품들이 시가에 귀속됨을 알수있고 이 면전에서 고전문학에서 詩歌文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도 알수있겠다。

그런데, 現實的으로는 흔히 詩歌文學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歌辭에 관해서는 이것이 詩歌라고 하는 見解, 詩歌가 아니고 隨筆의 양 性格을 同時에 具有한 특이한 形態文學으로서 詩歌와 対等한 위치에 설 수 있는 独立된 歌辭 장르로 規定하는 見解, 律文으로 된 敎說(述) 文學이라고 하는 見解들등 그 見解가 정말 구구하다。

이와같이 歌辭의 장르를 規定하기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歌辭가 가지고 있는 特異한 性格 때문이겠지만, 後學을 위해서 歌辭를 詩歌에 包含시킬것이냐 아니면, 詩歌와 独立된 別個의장르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절실한 문제가 된다。 筆者는 本考에서 이 문제에 대한 解答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詩歌와 歌辭

歌辭가 詩歌文學에 포함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1차요건은 詩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詩歌가 무엇이냐에 있어서 詩와의 대비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詩와 詩歌의 공통점은 다 같이 詩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점은 詩는 「詩」이지만 詩歌는 「詩+歌」로 「歌」字가 하나더 첨용되고 있는 것이다。

詩→詩　詩歌→詩+歌

詩에다 歌字가 하나 더 添用된 詩歌는 이語彙가 어떻게 添用関係를 가지는가하는 것을 알아보는것이 詩歌의 해석을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알아보기전에 文獻的 用例를 찾아 그에 合當할 해석을 찾수도 있겠지만, 결국 語彙의 結合関係 내지 添用関係의 근본적인 論及은 불가피하다。

詩+歌가 併列的 복합관계의 어휘라고 하면, 「詩」와 노래(歌)」라는 풀이가 된다。 詩+歌의 복합관계가 상호 拘束的(규속적) 이라고 하다면, 詩로 된 노래 또는 노래로 불린(唱) 詩라는 풀이가 된다。

①詩+歌=詩와 노래

(병렬적 복합어)

②詩+歌=　③詩로 된 노래=歌

(구속적 복합어) ④노래로불린(唱)시=詩

이상 ①~④를 노래(歌)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도 異見을 갖지 않을 것이다。 다만 歌辭만을 詩가 아닌 歌辭로 取扱하는 것이냐 하는 아무도 시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한 아무도 시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판소리系 소설들을 노래(歌)로 인정하듯이 歌辭를 포함하는 노래(歌)를 제제로 한 것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歌辭가 詩歌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견해는 ①의 詩로된 노래, 또는 노래로 불린(唱) 詩라고 하는 詩歌의 槪念範疇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①의 개념범주를 따르다고하다도 「詩」가 과연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때, 가사를 가사속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이다。

詩經에서 말한 詩가 오늘날 우리가 poem이라고 하는 음악과 같을지 자못 의심스럽고, 본단 아니라 시가 시였기 때문에 詩인지 아니면 詩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文化史的으로 볼때 藝術의 分化는항상 変化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나고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意味하는 詩는 우리 時代가 갖는 한 경향적 규범일 뿐이다。 따라서 歌辭가 오늘날 文學장르중 어디에 屬할 것이냐는 해답을 우리에해 미리 예상하고 지어진 作品을 아닐 것이다。

歌辭가 오늘날 문학 장르중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 歌辭가 갖는 특징 위에 나가 現代人이 보기 편리한 색로운 의상을 덮씌우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古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수는없다。 몇 세기에 걸친 그 內容的 変因을 충분히 고려할때 現代와의 脈絡은 찾을수 있겠지만, 歌辭는 歌辭일 뿐인 것이다。

(2) 詩歌와 詩

국어대사전에 詩歌의 풀이를 보면, ①「詩」, ②「詩와 노래」로 풀어 놓고 있다。 ①의 「詩」라고 풀이한 것은 「詩調歌」라는 견해이다。 현대적감각으로는 詩는 詩는→음악으로 통하여 각각 다르게 쓰이지만 옛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의어로 쓰였다。 古代人의 원시종합적 정서형태에서 노래는 곧 詩일 것이고, 詩는 곧노래였을 것이다。

唐詩人 李白의 「子夜吳歌」 「峨眉山月歌」 「秋浦歌」 나 杜甫의 「悲歌」는 엄밀히 말해서 노래(歌) 아닌 詩였던만큼 詩가 있음에서 알 수 있다。 ①의 풍이에 따른 「歌」는 詩인 것이다。 歌辭의 「歌」字는 본 詩인 것이다。 歌辭의 「歌」는 詩로 通하는 이 문제에는 詩(poem)와는 대조적으로 풀이해서 「詩」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번째 풀이는 詩와 노래라고 하여, 詩와 노래가 엄연히 다름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詩歌가 詩와 歌로 분리되어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①의 詩에서→②詩와 노래로 풀이된 것은 詩에서→다시 詩와 노래(歌)로 分化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詩→②　③詩→④歌

①의 「詩」에서→②의 ④「詩」로 됨에는 「詩」의 意味縮小 내지는 分化가 예상되고, 따라서 우리는 詩가 詩였기에 詩가 아니라, 詩가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尙書舜典에 의하면 詩와 歌가 약간 달리 풀이되고 있다。 詩言志 歌永言이라 함이 그것이다。 詩言志, 歌永言이 言志에서 오늘날 흔히 말하듯 詩가 반듯이 韻文이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韻文은 文章表現 言(言語)의 한 形式에 불과할 것이고, 詩는 文學(言) 類型의 하나일 뿐이다。

詩言志歌永言에서 詩는 곧 言이요。 詩經에서는 詩者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라 했다。 마음속의 뜻이 말로나타난 것이 詩요, 그 말을 노래한 것이 歌이다。

詩는 歌는 言語를 共有한다。 詩通歌에서 詩가 歌로 通할 수 있는 要件의 하나에는 言語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각각 다르게 쓰이지만 옛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의어로 쓰였다。 古代人의 원시종합적 정서형태에서 노래는 곧 詩일 것이고, 詩는 곧노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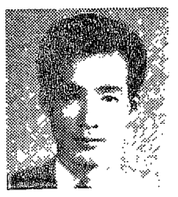
唐詩人 李白의 「子夜吳歌」 「峨眉山月歌」 「秋浦歌」 나 杜甫의 「悲歌」는 엄밀히 말해서 노래(歌) 아닌 詩였던만큼 「歌」라 命名했음을 보아도 그렇고, 또은의 丹心歌나 吉再의 佔吉歌도 時調(詩) 였지만 歌라 했음에서 알 수 있다。 ①의 풍이에 따른 「歌」字는 본 詩인 것이다。 歌辭의 「歌」는 詩로 通하는 이 문제에는 詩(poem)와는 대조적으로 풀이해서 「詩」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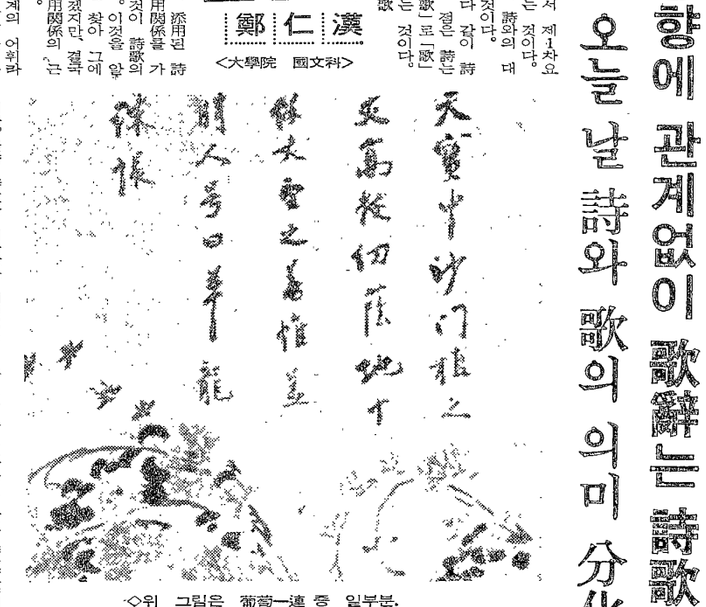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번째 풀이는 詩와 노래라고 하여, 詩와 노래가 엄연히 다름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詩歌가 詩와 歌로 분리되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①의 詩에서→②詩와 노래로 풀이된 것은 詩에서→다시 詩와 노래(歌)로 分化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人心之發於口者 爲言이라 함에의 그것이지 ①言之有節者 爲歌詩文歌들 必須로 해야 저지하지는 않는다。 散文이나 韻文이나, 報道文으로서의 言語나 感動的 언어나, 직관을 통한 창조나 說明하고 批評하는 言語나의 선택이 요구되어야 할 까닭도 없다。 또 歌가 시 樂이어야 할 까닭도 없다。

歌辭 作品이 3·4·4調 또는 4·4調를 律調로 하는 율문이어서 詩가 되고 말해도 틀린다。 現代的 性格때문에 poem이 아니고 Essay적 詩歌에서 제외해서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과 性格은 바로 「歌辭」 文學의 성격을 잘 나타내어 줄 뿐이지, 가사를 詩歌에 포함시켜야 제외시켜야 하는가를 決定할 수 있는 要件은 아니다。 如上에서 말한 詩歌의 개념 속에 歌辭는 얻연히 놓여 있었다。 新羅人들의 입으로 노래한 사뇌가, 경기체가, 속요 시조가 詩歌文學의 하나이, 오늘날 사람들의 詩에 대한 槪念 規定과 상관없이 가사도 詩歌文學에 포함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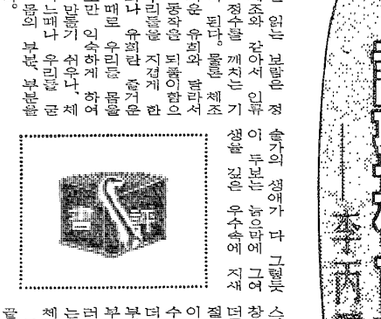
◇위 그림은 葡萄一連 중 일부분.

時代경향에 오늘날 詩와 歌의 관계없이 歌辭는 詩歌에 포함돼

의 分化되고 있어

金長好 교수 〈師範大교수·現代文學〉

「詩聖杜甫」



읽기쉬운 문장, 全篇 감상수록

고전을 읽는 보람은 정신의 체조와 같아서 인류문화의 정수를 초보편이 된다。 물론 체조만 즐거운 유희와 별라서 똑같은 동작은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들을 지경게 한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 몸을 나머지 한편으로만 익숙하게 하여 불구로 말들기 쉬우나, 체조는 어느때나 우리들 곁에 있는 몸의 부분, 부분을 풀어준다。

이 정신을 유연하게 해 줘는 고전중의 고전이라 할 두보의 시를 읽는 묘미도 들려여서 그 가락은 점점 깊이 여기서 비롯된다。 뛰어난 예 그 시는 자연의 체취가 가득하고 자신의 외부로 향했주

文學賞제정이 발전轉機돼야

올바른 전통, 계승돼야 빛나는 것

現實과의 연계로 전통의 미 찾아야

뜻있는 同好人들 모임 활발 바람직

東國의 傳統에 있어서 佛敎의 伝統이 本來的이고 必然的인 것이라 말할수 있다면 그에 比해 文學의 伝統은 우리에게 後天的인 것이며 선배들의 努力으로 爭取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그것은 초창기 찬란했던 선배들의 文學史的 位置에서 비롯되어오는 것이며 그 伝統을 유지, 발전시키려했던 노력의 結晶이기도 하다.

李來秀 (공주대) 교수는 本報에게 재했던 「韓國문단과 東國文學」이라는 글에서 『萬海, 韓龍雲으로부터비롯한 東國文學의 伝統은 그후 辛夕汀, 金達鎭, 徐廷柱, 趙芝薰을 거쳐 趙演鉉에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東國文學은한국현대문화과 출발을 같이 할수 論발전의 매듭을 할께한다.

이것은 東國이 배출한 文人들이 한국文學을 선도하고 한국문화사의 본류를 이루는 큰 물줄기가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있다. 이말이 아니더라도 지난 70년간 동국文學이 한국文學의 주류를 이뤄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일이다. 또한 이말에는 아무도 사족을 달수 없다.

그것은 1906년 구한말 明進學校를 개설함이래 불교사범, 高等佛敎義塾, 東光學校, 中央學校, 佛敎專修學校, 惠化專門學校등거쳐 해방 후 동국대학교로 이르는동안 후진양성에 힘썼던 東國의 스승들이 植相老, 崔南善, 吳相淳, 鄭寅普, 李秉岐, 朴鍾和, 金永鎭, 吳完換, 鄭芝溶, 金起林, 林學洙, 皮千得, 吳河淵, 金鼎奎, 金光奎, 李軒求, 梁柱東, 白鐵, 柳致眞, 徐廷柱, 趙芝薰, 趙演鉉 제씨들 모두 당대를 풍미한 쟁쟁한 문사들이었다는것을 재확인한다면 더욱더 확성해지는 것이다.

확실히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은자랑스러운 것이며 우리에겐 이를은 상없이계승, 발전 시켜야할 의무가 있는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東大歷史 76年째를 맞는 이싯점에서 우리는, 그 전통의 現願으로써 오늘날의 東國文學의 客觀的 위치는 이미쯤 인가?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 克服되어 점수 있는가?伝統의 발전적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따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가 없다. 물론 이러한 걸보의 요구는 現在 東國文學에 있어 무언가 內在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연연되어지는 것이지만 이다.

지금은 이와같은우리학생들자신에게는 물론 교수나 학교당국에게까지 도송죽하고 진정한 자기성찰과객관화의 자세가 요구되는때라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않고는 伝統의 발전적 계승에 유의하고, 뜻있는 결론을 찾기가 결코 쉬운일 하는 作家들도 많을터이고 개성있는 作家가 드물다고 말하고 『文學을 지망하는 學生들이 옛날에 공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학교측에서도 작품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선한 작품」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他校들의 예를 들어가며 學校당국의 특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月 人間演劇」이라는 作品으로 현대文學賞을 수상한 趙炳來 (소설가) 등장인은 『좋은 교수 없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다』며 『文學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東國文學은 學生들이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썼느냐 에 달렸다』며 근본적인 問題를 지적하기도 했다.

伝統이라는 것은 現實과의 연계에서만 의미를 가질수 있는 것이고, 전통이 현실과 유리되었을 때 그것은 과거속으로 묻혀 빛을 잃게된다. 다시 말해 전통은 부록 오늘을 살리는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실에 의해 의미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

이러한 전제에 의거해서 東國文學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